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

민주당 후보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77) 전직 부통령 출신은 그는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 꿰찼다

바이든은 앞서 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초반 좌절 겪었으나 이후 주도권 잡으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최고 부통령"이 칭송했던 바이든은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 정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어떤 길 걸어왔을까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앞서고 있나

아시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6선 상원의원 출신 전직 부통령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공천에 출마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오바마 대선 열차에 합류했다

이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 동안 일했다 건강보험개혁법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개혁 등 그가 내세우는 정책 상당 부분이 오바마 시절 유산이기도 하다

그가 "형제" 언급하는 오바마와 친분은 흑인 유권자들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 오랜 내부 인사인 바이든은 상대적 정치적 경험이 적었던 오바마 부족 부분 채워줬다

중산층 조(middle class Jo) 로 불렸던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선호하지 않는 집단인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 지지를 얻기 위해 투입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바이든은 "동성 결혼에 대해 개인적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임 거친 오바마 대통령 보좌하며 부통령직 맡았던 시간은 40년 정치 인생 정점이었다

델라웨어 출신인 바이든은 1972년 처음 정계에 진출했으며 6선 상원의원 활약했다

1988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영국 노동당 닐 키녹 의원 연설 표절했다가 사퇴 바 있다

정가에서 오랜 시간 활동 만큼 비판받은 점도 많다

경력 초기 바이든은 법원이 인종 통합 스쿨버스 운행 명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부 분리주의자들 편 들었다

1991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불공평 청문회 운영 문제가 됐다

바이든는 대법관 후보 클래런스 토마스가 전 직장 동료인 아니타 힐 법학 교수를 성추행 혐의를 조사했었다

당시 그는 토마스에게 아니타 힐 청문회 앞뒤에 모두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 수락해 유리 환경 만들어줬다 반면 아니타 힐 증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증인은 청문회에 세우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1974년 조 바이든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또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교도소 형량 강화했고 불균형적 많은 유색인종 감금 비판 받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 받기도 한다

개인사

바이든은 개인적 비극 꽤 겪었다

첫 상원의원에서 당선된 직후인 1972년 첫 부인 닐리아와 어린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보와 헌터가 입원 병실에서 울며 상원의원 선서를 일화는 유명하다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아들 보 바이든과 함께 조 바이든

2015년에는 당시 46세이던 장남 보가 악성 뇌종양 세상 떠났다

보는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였고 2016년 델라웨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바이든은 세상 떠난 아들로 인해 다시 대선에 도전할 힘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 공약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 아픔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 이야기하곤 한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패밀리 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조 바이든

하지만 이런 따뜻함에도 구멍은 있었다

2020년 경선에 들어간 후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달갑지 않은 신체 접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이 항변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시대 기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 얻게 됐다